수능내신 국영수 파일제공 학습자료 사이트

2024년 고1 6월 모평

2024년 시행 고1 6월 모평 국어 문학 | 강호사시사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.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지문 분석

[<u>강호(=자연(대유법))(다른 고전 시가 작품을 <보기>로 제시한 후, '강호'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의 시어를 찾으라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(아름다운 자연으로 인한 즐거움 / 자연 친화적 태도)</u>

시냇가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로다(소박한 음식(박주산채)을 먹으며 자연에서 즐김.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남.)(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이 몸이 한가한 것도 <u>역시 임금의 은혜</u>(=역군은(亦君恩). 유교적 충의 사상)(해당 작품에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로다

▶ 1수(봄): 자연에서의 즐거움

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(은사들이 즐겨 지내던 벌채)에 일이 없다

미더운 강 물결(의인법)(해당 부분에 쓰인 의인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이 보내는 것은 바람이로다

이 몸이 서늘한 것(시원하게 지내는 것)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

▶ 2수(여름): 초당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냄.

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(가을의 풍요로움이 드러남.)

조그마한 배에 <u>그물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(유유자적하고 욕심이 없는 삶)(생업으로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노</u> 래와 비교하여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이 몸이 소일하는 것(느긋하게 세월을 보냄.)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

▶ 3수(가을): 낚시를 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

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가 넘다(과장법)

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]([]: 해당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수 있습니다. 해당 작품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.)

▶ 4수(겨울): 안빈낙도의 삶

- 맹사성, 「강호사시가」

핵심 정리

■ 갈래: 평시조, 연시조

■ 성격: 자연 친화적, 풍류적

■ 주제: 자연에서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

■ 특징

- 최초의 연시조로서 이황의 <도산십이곡>과 이이의 <고산구곡가>에 영향을 줌.
-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하며,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드러냄.
- '봄-여름-가을-겨울'로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.

이해와 감상

고려 말 벼슬에 올라, 세종 때 좌의정에 이른 맹사성이 지은 연시조로 후대 강호한정가들에 큰 영향을 준 작품이다. 특히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종장에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은 후대 강호한정가들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. 전4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각 수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의 4계절에 대응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.

서지정보 저자 정준희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-11-377-7241-0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4.06.10 가격 500원

